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hopia.com/mem/ha
nmaum

법공양 페이지

“마음에서 피는 연꽃 진짜 보배”

우리가 함께 이 자리를 하게 된 것은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세계를 돌아봐도 부처님이 가르쳐주시는 그 과정을 그대로 가르쳐주는 곳이 별로 없고, 또 스님네들이 잘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의 방편을 자주 쓰시니까 현대의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고 해서 큰 걱정입니다. 세계를 따지고 전 우주를 다 따져봐도 모두가 한 생명 한 교리인데, 우리가 그렇게 뜻을 같이 하지 못하

가서 구비구비 걸고 빠지고 나오면서 온통 이렇게 돌아치는 경로를 얘기했는데 우리 생활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고'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한테 어떠한 일이 닥치든, 안에서 일어나든 바깥에서 치고 들어오든, 모든 것을 나오는 자리에서 나오게 되므로 입력이 돼서 누적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차례차례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의식처인데 생명의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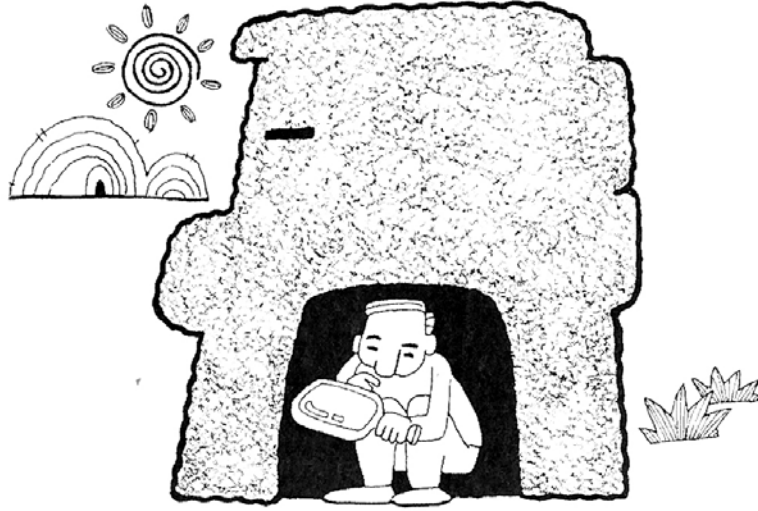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내 몸속을 세계라 생각하고 나를 찾으러 들어가 보세요 그것을 쫓라고 하시겠습니까”

고 있는 것이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은 먼 데서 찾지 마시고 아주 가까운 나에 가서, 뭣났든 잘났든 내가 나온 자리에서 바로 나를 찾도록 하세요. 아랫눈썹과 윗눈썹이 깜짝거리듯 정신계와 물질계가 즉 육신과 정신이 둘이 아니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지금도 항상 활용하고 사시지만 너무 가까워서 찾지 못하는 경향이 많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내 몸 속에 들어가서 나를 찾지 않고 타의에서 나를 찾는다면 영원히 찾지 못한다고요. 그러면 몸 속에 들어가서 찾을 때 어떻게 찾느냐. 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각 소임을 맡은 구비구비 그 개체의 소임자들을 다 만나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게 됩니다. 만약, 우리 정신계가 저 비록만 하다면, 비록만하게 축소해서 들어간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산도 있고 물도 있고 진흙밭도 있고 자갈밭도 있고 뭐 온통 난리일 겁니다.

세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에 나를 찾으러 거기에 들어가셨을 때 그 구비구비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자갈밭을 걸고 가시발을 걸고 흙탕물에 빠져가면서 걸고 할 때를 고(苦)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한마음의 생활은 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 구비구비 넘어가면서 닦쳐오는 모든 것을 거기 놓고 가려다 이랬던 말입니다. 지금 내가 비유해서 이 속에 들어

식들이 하는 농간에 속지 마세요. 이 의식들이 모두 입력이 돼서 차례차례로 나오게 되니 그 해아릴 수도 없이 나오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해결을 못하니까 그걸 팔자다 운명이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나 그것을 나오는데 다시 그 속에다 놓으면 앞의 입력이 없어지고 현실에 내가 새롭게 입력하는 것만이 나오기 때문에 팔자운명이 따로 없다고 합니다. 이것을 수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듣기는 들으나 실천에 옮겨지지 않음으로써 해결이 되지 않는 경향이 여간 많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못 믿는다면 누구를 믿겠습니까. 이 세상에 자기 빼놓고 바깥으로 믿을 데가 누가 있습니까. 부처도 믿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부처를 따르되 믿지는 마라. 먼저 너를 알아야 부처의 마음도 알고, 부처가 공체로서의 몸이 천백억 화신으로 나누는 도리도 알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아까도 몸 속에 들어가서 겪어야 할 문제를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겪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생활에서 겪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러니 그 모든 것을 돌로 보지 말고 자꾸 거기가 놓고 가고 또 놓고 가고 한다면 바로 홀연히 문이 열리게 될 겁니다. 결국은 내가 나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진짜로 믿지 못하고 놓지 못한다면 아니 놓는다는 말도 이게

“발자국 떼어 놓듯 살림도 그렇게 사세요” “자기가 자기를 못 믿으면 누구를 믿겠어요”

아닙니다. 뭐 놓는다 안 놓는다 이런 언어가 붙지 않는 자리죠. 왜냐하면 저 나무를 보셨죠. 뿌리가 전부 잘라지고 맞붙어 있어. 흙이 덮여 가려서 안보일 뿐이지 맞붙어 있던 말입니다. 그래서 나무한테는 그 흙이 무명이 되고, 무명이 가려서 자기 뿌리를 못보게 되고, 인간은 자기의 그 무명이 나무에 흙이 덮인 것처럼 관습, 욕심, 착을 버리지 못해서 자기를 못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모든 고난을 다 겪고나면 홀연히 연꽃이 피게 됩니다. 진흙 땅에서 연꽃이 피는 것이죠. 그냥 진흙 땅에서 연꽃이 피는 거야 누구나 보고 말하고 행할 수 있지만, 내 몸 속의 진흙 속에서 피어오는 연꽃은 더러운 물이 묻지 않으니 아주 귀한 것이 되죠.

마음은 체가 없으니 물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수억겁을 살던 관습과 집착과 욕심과 애정과 원한 이런 것들이 쌓여서, 꽃이 피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흙 땅에서 피는 그 연꽃은 더러운 물이 묻지 않는다는 그 뜻을 다시 한번 새겨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의 꽃이 즉, 마음에서 홀연히 피는 그 마음의 연꽃이야말로 진짜 보배임을 알게 될 겁니다.

태어나셨을 때도 일곱 걸음을 걸으실 때 한 발자국 떼어 놓았다 연꽃이 그 발밑에 피어서 그걸 밟고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이 한발짝 떼어놓을 때에 그것이 말하자면 '용무'입니다. 내가 이 발자국을 떼어 놓아줬다 하고 떼어놓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내가 가겠다 하는 것도 없이 그냥 말도 없이 갈 때가 되면 그냥 걸어 갑니다. 발자국을 하나하나 떼어놓을 때에 뒷 발자국은 자꾸 없어지면서 새로 앞으로 한발짝씩 걷는 것이 바로 용무입니다. 바로 '공법'이다 이 소립니다. 내 몸 속에 헤아릴 수 없는 생명들이 들어있는 한 개체가 떼어놓을 때 그것을 연꽃에 비유한 것은, 내 마음이 바로 움직여주는 연꽃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움직여주려 피어오는, 그리고 한발짝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중·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여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중년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며 개인 물자의 경우는 특정 중년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18면으로 계속

생활 속의 불교 168

다만 묵연한 발걸음이 당당해 보일 것이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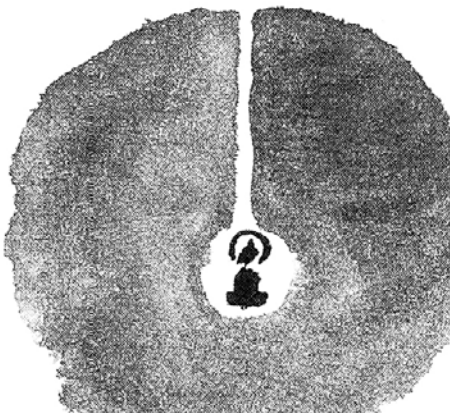
“재화를 음취하려는 마음의 무게만큼 도의 마음은 반대로 적어진다. 영예를 뒤쫓는 발걸음이 바쁘면 바쁜 만큼 도의 마음은 멀어지게 된다. 가는 것 붙잡지 않고 오는 것 막지 않으며 지혜롭게 동글게 살아야 한다.”

행하다느니 혹은 이래서 괴롭고 저래서 즐겁고... 갖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없게 되었을 때, 채우고 싶은 만큼 채워지지 않았을 때 우리들의 대부분은 슬프고 괴롭고 우울해진다. 남들은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왜 이렇게 밖에 안된단 말인가? 자기 자신이 싫어지기도 하고 자신의 운명이 야속하다는 생각도 갖게 된다. 반면에 가질 수 있고 갖게 되고 채울 수 있다면 삶은 온통 장미빛으로 즐겁고 보람과 행복만이 있는 듯이 여겨진다. 그러나, 욕망엔 한계가 없다. 채워진 듯 살다가도 이내 더 큰 욕망이 입을 벌리고 다가온다. 마치 구멍뚫린 독처럼 채우고 채워도 넘치지 않는다. 한번 맛을 들이면 좀처럼 끊기 어렵다는 환각제와 같다고 할까. 그래서 욕망은 욕망을 낳는 목마름으로 이어지고 삶은 자칫 욕망의 노예가 되기 쉽다. 수분지족(守分知足)이 어려운 것도 그 때문이다.

우리로 하여금 행복과 불행의 갈림길을 오가게 하는 대상들은 많다. 돈·명예·사랑·건강·능력 등... 아니, 삶 가운데 부딪히는 모든 대상과 사건들은 하나같이 우리들에게 모종의 감상을 느끼게 한다. 이래서 행복하다느니, 저래서 불

행하다느니 불행하다느니 하는 마음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욕구에서 온다. 채워지면 행복을 느끼고 안 채워지면 불행함을 느낀다. 욕구는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바로 '나'라는 생각에서 온다. 뿌리는 바로 아상(我相)에 있다. 행복과 불행의 대상으로 삼은 모든 것들을 취하고자하는 마음은 바로 '나'라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그 아상을 잘라내지 않으면, 그 아상을 끊어죽이지 않으면 욕망이라는 사슬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벗어날 수 없기에 삶 속에서 온갖 괴로움을 맛 볼 수밖에 없게 된다.

다만 내가 만들어낸 관념의 연상일 뿐이다. 내가 어떤 상태는 행복으로 정의했고 어떤 상태는 불행이라고 규정지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 행복이나 불행에 어떤 모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 한번 바꾸면 상황도 달라진다. 마음먹기 나름이다. 대상을 향해 밖으로 끊임없이 내달려 마음을 쉬고 눈을 돌려 그 생각의 뿌리를 보라. 누가 이런 생각을 일으키는가? 무엇이 나오려 하는가?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가? 곰곰히 찾아보라. 그 물음에 대한 답은 결국 '나'일 것이다.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그 '나'를 찾아보라. 비록 나를 발견하지 못한다해도 행·불행, 욕구나 관념 따위가 다만 나의 의식 놀음인 것은 알게 된다. 그걸 알면 오는 것 가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될 수 있게 된다. 참다운 인욕, 놓고 가는 삶이 실현된다. 욕망의 불꽃은 찾아들고 목마름도 점차 사라진다. 다만 묵연한 발걸음이 당당해 보일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행복과 불행의 갈림길을 오가게 하는 대상들은 많다. 돈·명예·사랑·건강·능력 등... 아니, 삶 가운데 부딪히는 모든 대상과 사건들은 하나같이 우리들에게 모종의 감상을 느끼게 한다. 이래서 행복하다느니, 저래서 불

행하다느니 불행하다느니 하는 마음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욕구에서 온다. 채워지면 행복을 느끼고 안 채워지면 불행함을 느낀다. 욕구는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바로 '나'라는 생각에서 온다. 뿌리는 바로 아상(我相)에 있다. 행복과 불행의 대상으로 삼은 모든 것들을 취하고자하는 마음은 바로 '나'라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그 아상을 잘라내지 않으면, 그 아상을 끊어죽이지 않으면 욕망이라는 사슬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벗어날 수 없기에 삶 속에서 온갖 괴로움을 맛 볼 수밖에 없게 된다.

다만 내가 만들어낸 관념의 연상일 뿐이다. 내가 어떤 상태는 행복으로 정의했고 어떤 상태는 불행이라고 규정지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 행복이나 불행에 어떤 모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 한번 바꾸면 상황도 달라진다. 마음먹기 나름이다. 대상을 향해 밖으로 끊임없이 내달려 마음을 쉬고 눈을 돌려 그 생각의 뿌리를 보라. 누가 이런 생각을 일으키는가? 무엇이 나오려 하는가?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가? 곰곰히 찾아보라. 그 물음에 대한 답은 결국 '나'일 것이다.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그 '나'를 찾아보라. 비록 나를 발견하지 못한다해도 행·불행, 욕구나 관념 따위가 다만 나의 의식 놀음인 것은 알게 된다. 그걸 알면 오는 것 가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될 수 있게 된다. 참다운 인욕, 놓고 가는 삶이 실현된다. 욕망의 불꽃은 찾아들고 목마름도 점차 사라진다. 다만 묵연한 발걸음이 당당해 보일 것이다.

행복이나 불행, 즐거움이나 괴로움은

협찬: 전재필·오선아